

의식수준 감시의 최신경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교실 부교수

노 규 정

경력	1981. 3. 1 ~ 1987. 2. 2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1989. 3. 1 ~ 1991. 2. 2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 1994. 3. 1 ~ 1996. 2. 2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1997. 9. 18 ~ 2000. 2. 29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2000. 3. 1 ~ 2001. 8. 3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마취과학 교실 구리병원 마취과 부교수 2001. 9. 1 ~ 2002. 2. 28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마취과 조교수 대우 2002. 3. 1 ~ 현재 울산의대 마취통증의학과교실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부교수 전공: Clinical Pharmacology, Computing and Technology in Anesthesia and Intensive Care
----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 2동 388-1,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우편번호: 138-736
 Tel: +82-2-3010-3855, Fax: +82-2-470-1363, E-mail: nohgj@amc.seoul.kr

근래에 각종 내시경 시술, 중재적 방사선과, 자기공명영상 촬영, 부위 혹은 국소마취로 수술 받는 환자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 등 진정이 적용되는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적용되는 시술과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서 목표로 하는 진정심도가 각기 다를 수는 있으나, 중환자실 환자 중 심한 호흡부전, 간질지속 상태, 조절되지 않는 뇌압상승, 파상풍 등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잠들어 있으나 쉽게 깨울 수 있는(asleep but easily rousable) 정도의 진정심도 혹은 의식진정(conscious sedation)이란 환자와 구두 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협조가 유지되는 정도의 진정심도를 말하는데 실제 임상에서 진정을 시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의사와 구두 의사소통 및 자기 방어용 반사 작용들이 소실되는 깊은 진정으로 심도가 깊어지거나 심지어는 얕은 마취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으로 진정심도는 진정척도(sedation scale)를 이용하여 평가해왔으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평가자에 따라서 같은 심도의 진정상태라도 달리 평가될 가능성이 많다. 주관적인 진정척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중분광지수, 청각유발전위, 맥박간 변이도 등의 객관적인 변수들이 진정심도 평가에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연구 중인데, 이들의 공통적인 단점은 같은 수치라도 진정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간의 중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체에 의한 중추신경계 억제의 결과를 환자로부터 직접 되먹임(feedback) 받을 수 있다면, 즉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진정심도를 평가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식진정의 임상적 목표점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진정법의 중요 확인 사항인 의식수준감시의 최신 경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